

 <b>더불어민주당</b> 2022.7.7.(목)	<b>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보도자료</b>  담당 : 장애인권리보장팀 최혜영 간사실 연락처 : (02)784-7190
--	--

## 인권침해 발생 장애인거주시설은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 우선 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7월 7일(목) 오후 3시부터 안동시청에 방문하여 안동시청, 경북도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미온적 조치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간 장애계는 인권침해 발생 시설의 폐쇄와 보조금 중단, 거주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선산재활원의 경우 거주장애인의 임금을 횡령하고, 거주장애인 30명 중 21명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등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시설을 즉시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팀장 박찬대 의원, 간사 최혜영 의원)은 안동시청을 방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사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안동시청, 경북도청, 직접 사건 조사를 진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 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를 통해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거주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일정에는 박찬대(팀장), 최혜영(간사),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해결의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고, 관련 기관 및 협의를 통해 거주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

2022. 7. 7.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